

【기고 번역】

# 지금 바로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는 방법

<일 러 두기>

☞ 본 자료는 포브스(Forbes)에 실린 조엘 모저(Joel Moser)의 기고 「How to Invest in the Energy Transition Now」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번역한 내용이며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ow To Invest In The Energy Transition Now



Joel Moser Contributor ⓘ  
Energy

【원문 바로가기 : <https://bit.ly/2H8GT6t>】

☞ 주요내용

- 마이크로소프트 '2030년 탄소 마이너스', bp '2050년 넷 제로', 호라이즌 오가닉 '2025년 탄소 중립' 발표에서 보듯이 자본(기업들)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
- 자산 규모 5만 달러 이상의 24개 이상의 국제 투자기관이 UN의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에 합류하는 등 기후 이니셔티브는 경영진의 주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음
- 에너지전환 관련 자산 및 지속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기타 부문 대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에너지전환의 경제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투자처이면서 가장 큰 미래 사업 기회의 장이 될 것

Forbes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Agency

# 지금 바로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는 방법

기고일자 : 2020.9.16

작성자 : Joel Moser

매체 : Forbes

번역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난 100년 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전염병이 최근 몇 달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에 따른 경제적 공황과 재정난 속에 현재 기준으로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로 급락했고, 주가는 급락 후 신기록을 세우며 급상하기도 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던 불평등은 정치사회학적 불안을 야기했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전 세계에 만연한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전염병부터 인종 차별과 파시즘까지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투자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지도 모른다.

기업, 프로젝트 개발자, 개인 자본, 기관 투자자, 공공 시장이 채빠르게 지속가능한 실천, 자산, 사업을 향해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러한 혼돈 속에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시장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드러났다.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자 행동주의(activism)는 행동으로 옮겨졌고, 자본은 인류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더욱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들 보다 더 빠르게 인지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올해 지금까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야심찬 탄소중립(carbon neutral)<sup>1)</sup>이나 탄소 마이너스(carbon negative)<sup>2)</sup> 선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마이너스를 약속했으며, bp는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sup>3)</sup>를, 호라이즌 오가닉은 2025년 탄소중립을, 블랙록은 전체 자본을 지속가능성과 목적의식을 가진 부문에 대한 투자로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산 규모 5조 달러(한화 약 5,500조 원)의 24개 이

1)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2) 탄소 네거티브라고도 한다. 배출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3)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는 상태로,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의 국제 투자기관이 UN이 소집한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에 합류하였고,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파리기후협약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기술, 에너지, 농업, 금융 부문의 주요 리더들이다(2019년 4/4분기 기준 블랙록은 세계 자산의 7.4조 달러를 보유). 이에 동참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투자기관들의 이러한 약속들이 단순 홍보 술책 혹은 위장환경주의(green washing)<sup>4)</sup>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기후 이니셔티브는 경영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약속에 동참하기 위한 첫발을 끼고 있다.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소를 예비 전력으로 활용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bp는 중국에서 통합 탈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진코전력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블랙록은 이미 "기후변화 리스크를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거나 이를 공시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기업들의 주주총회 의안분석에서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대규모 저탄소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을 모으고 있다. 에어프로덕츠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규모의 그린수소 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스남(Snam)은 수소에너지를 산업체에 조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퇴직금을 스스로 관리하는 소매 투자자에게도 나타난다. 지속 가능한 EFT로 흘러가는 자본이 2020년 1분기에 주당 근 10억 달러(한화 약 1조 원)에 달한 반면 전통적 EFT 펀드는 불안정한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에너지전환 전략의 기저가 되는 기후행동, 보건, 및 사회정의 목표에서 나아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일치하는 지속가능 부문 투자로부터 확실한 금전적 혜택을 기대한다. 3년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 ESG 펀드(환경·사회·거버넌스 펀드)의 대부분(약 65%)은 시장에서 상위 50%의 성과를 내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처음 몇 달 동안 지속가능성 관련 지수의 94%는 시장 내 다른 기업들의 성과를 뛰어넘었다.

---

4) 환경적으로 해로운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거나 감추기 위해 친환경적 방안을 시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의 교훈은 불확실성, 변동성,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최초의 전염병도 최후의 전염병도 아니며,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최초도 최후의 사건도 아니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 도시화,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같은 시장의 여건과 관계없이 일반 경제와 연관성이 낮은 자산, 시장혼란을 틈타 성과를 만들 자산, 인류의 활동과 향후 몇십 년의 경제를 장악할 메가트랜드와 연계된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대체로 인프라(특히 에너지 관련)와 에너지전환 자산 및 사업은 풍력과 태양광에만 국한되었고, 과도하게 투자되었으며, 다른 에너지원 대비 비싸다고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안성맞춤이다. 에너지전환 자산 및 투자는 전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저위험 투자 프로필을 구성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위험 완화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믿을 수 있는 상대방과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 단기 쇼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탄소 미래와 관련된 자산의 장기 가치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을 통해 생산되는 “블루(blue)” 생산물<sup>5)</sup>을 제공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은 블루수소와 블루암모니아와 같은 에너지전환 연료 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철, 풍부한 농업 수확을 위한 비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금속 생산 과정 등 인류의 현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산업 및 농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 공정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45Q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땅 속 깊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게다가 콘크리트와 고분자 같은 생산품에 이산화탄소 활용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다.

---

5)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블루수소’ 등을 의미한다.

폐기물 에너지도 위험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문으로 에너지전환 모델에 부합한다. 폐기물은 저렴한 연료이며,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매립되었을 때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기물이 매립되면 식수 대수충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탄소연료기준 프로그램처럼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이 수자원을 연료로 재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탈탄소 관련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 정책은 성장하는 산업을 비롯하여 투자자와 소비자 수요를 지원한다. 실제로 탄소세 계획은 대체로 기업과 투자가 저탄소를 선호하게끔 만들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모험적인 발전 방식이지만 소음이 적고,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적다.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주(州)들은 해상풍력 개발 계획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유럽 연합은 오래 전부터 앞서나가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민관협력 기회와 함께 해상풍력은 앞으로 다가올 몇십 년 간 에너지전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선진 배터리 기술은 기술기업과 벤처캐피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문이다. 반면에 현 가스 화력발전소에서 기존 배터리 기술이나 저렴한 태양광 패널을 도입하거나 제조시설과 원료 공급자의 거리를 좁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송 거리를 줄이는 것은 리스크가 낮아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전통적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에서 향상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부 정책 계획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다가오는 10년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중요한 시기라는 합의 하에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경제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이다. 많은 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전환을 달성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전환은 크고 작은 포트폴리오 내 자산 배분의 필연적인 동력원인 동시에 가장 큰 미래 사업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투자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